Coronation Mass in C major, K. 317

- □□

정보

Wolfgang Amadeus Mozart: Mass in C major, K. 317

‘Coronation Mass’

작곡가: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작품명: Mass in C major, K. 317, 통칭 ‘Coronation Mass’ 또는 Krönungsmesse
장르: 독창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미사
작곡 시기: 1779년, 자필 날짜 3월 23일
초연: 1779년 부활절 무렵, 잘츠부르크 대성당으로 추정
IMSLP: https://imslp.org/wiki/Mass_in_C_major,K.317(Mozart,_Wolfgang_Amadeus)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oronation_Mass

Wolfgang Amadeus Mozart의 Mass in C major, K. 317은 Kyrie, Gloria, Credo, Sanctus, Benedictus, Agnus Dei로 이어지는 여섯 부분의 미사다. 1779년 잘츠부르크로 돌아온 Mozart가 쓴 교회음악으로 , 오보에와 호른, 트럼펫, 팀파니의 축제적인 음향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독창과 혼성 합창에 결합한다. ‘ 대관식 미사 ’라는 이름은 Mozart가 붙인 공식 명칭이 아니라 후대의 전승에서 굳어졌으며 , 원래 작품은 짧은 예배 시간 안에 라틴어 통상문을 선명하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

개요
자필 악보 첫머리에는 1779년 3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 당시 Mozart는 만하임과 파리를 거쳐 잘츠부르크로 돌아와 궁정 오르가니스트와 작곡가로 일하고 있었다. Mozarteum은 이 미사가 1779년
부활절인 4월 4일 잘츠부르크 대성당에서 초연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며, Bärenreiter는 4월 4일 또는 5일로 열어 둔다. 날짜가 확정된 공연 기록이라기보다 자필 날짜와 당시 전례 일정에 근거한 추정이다.

잘츠부르크의 예배 음악은 미사 전체가 예배 시간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도록 간결해야 했다. K. 317은 이 조건을 지키면서도 합창과 독창의 교대, 금관과 팀파니의 밝은 울림, 느린 선율의 정서를 한 곡 안에 넣는다. Gloria와 Credo를 긴 푸가로 확장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대신, 통상문의 중요한 문장마다 속도와 음색을 바꿔 의미를 구별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Mozart 사후 1803년에 Breitkopf & Härtel이 Leipzig에서 총보를 출판했다. 그 전후로 남부 독일과
합스부르크 지역에서 필사본이 널리 유통되었고 , 제 2차 세계대전 뒤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자필 악보는 1970년대 말 발견되어 현재 크라쿠프의 Biblioteka Jagiellońska에 보존되어 있다. Bärenreiter의 BA 04880 은 Monika Holl이 편집한 원전판이며 , Carus 판은 Ulrich Leisinger의 편집과 비평보고서를 제공한다.

자필의 표지에는 오보에 ·호른 ·클라리노 ·팀파니 ·오르간 등이 적혀 있지만 트롬본이 명시되지 않는다. 현대 연주판에는 트롬본 세 파트가 합창의 낮은 성부를 보강하는 관행과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자필 표기와
후대 성부를 구분해 보면, 오늘날의 편성이 Mozart가 남긴 모든 연주 지시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소요 시간

전곡은 판본과 연주 규모에 따라 대체로 25–30분이다. Gramophone의 1984년 비교 평론은 K. 317을 약 26 분으로 제시했다. 합창단의 인원, 반복 처리, 템포가 달라지면 시간이 조금 늘어나지만 , 짧은 전례 미사라는
기본 성격은 유지된다.

편성

독창과 합창: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독창과 SATB 혼성 합창
목관: 오보에 2, 바순
금관: 호른 2, 트럼펫 2, 현대 판본에서 트롬본 3
타악기와 건반: 팀파니, 오르간
현악: 제 1·제 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트럼펫과 팀파니는 Gloria와 Credo의 빠른 선언, Sanctus의 장엄한 시작을 밝게 만든다. 느린 부분에서는
현악과 독창 앙상블이 앞에 나서며, 오르간은 예배 공간의 저음과 화성을 받친다. 한 악기군이 전곡을 계속 지배하기보다 , 통상문의 문장에 맞춰 합창의 밀도와 독창의 음역이 바뀐다.

전례문별 구성

Kyrie
Kyrie는 Andante maestoso 로 시작해 più andante 를 거친 뒤 처음의 장엄한 분위기로 돌아온다. 합창이 짧은 간청을 제시하면 독창자들이 응답하고, 마지막에는 처음 주제가 다시 나타나 곡의 문을 닫는다. 느린 속도의 기도와 독창 ·합창의 교대가 이후의 밝은 Gloria를 준비한다.

Gloria

Gloria `Allegro con spirito` . , , . `Qui tollis`, `Quoniam`, `Cum Sancto Spiritu` .

Credo

Credo `Allegro molto` . `Et incarnatus est` `Crucifixus` . `Et resurrexit` , .

Sanctus

Sanctus `Andante maestoso` `Allegro assai` Osanna . , . Osanna Benedictus .

Benedictus

Benedictus 4 · · · , Osanna Sanctus . Sanctus–Benedictus–Osanna .

Agnus Dei

Agnus Dei `Andante sostenuto` . `Dona nobis pacem` . *Le nozze di Figaro* ‘Dove sono’ . , K. 317 Mozart .

Carus Gloria Credo , Agnus Dei `Dona nobis pacem` Kyrie . , .

같은 시기에 C장조로 쓰인 교회 소나타 K. 329가 부활절 예배에서 연주되었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그러나 K. 329가 K. 317의 악장 사이에 실제로 삽입되었다는 확정 기록은 없다. 오르간 오블리가토를 포함한 교회 소나타와 축제 미사를 함께 배치하던 잘츠부르크의 관행을 보여 주는 관련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대관식 미사 ’라는 이름
Mozart 생전의 자료에는 ‘Coronation Mass’라는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Mozarteum은 1806년 프란츠 2 세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로 즉위한 대관식 관련 성부 세트에서 이 이름의 가장 이른 흔적을 찾는다. Bärenreiter와 Carus는 19세기 이후 여러 대관식에서 연주된 사실이 별칭을 굳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K. 317을 처음부터 대관식을 위해 쓴 작품으로 소개하면 작곡 맥락이 달라진다. Maria Plain의 성모상 대관식을 위해 썼다는 이야기나 1790년대 여러 왕실 대관식에서 연주되었다는 전승도 후대의 설명이다. ‘ 대관식 ’은 작품의 공식 작곡 목적이 아니라, 후대의 연주와 수용이 만든 이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녹음과 해석
Stephen Cleobury의 1984년 녹음은 세련된 리듬과 명료한 성악을 앞세우며, Agnus Dei의 소프라노 선율과 Figaro의 연결을 부드럽게 들려준다. Nikolaus Harnoncourt의 1988년 녹음은 시대악기 합주의 강한 악센트와 큰 다이내믹을 부각해 같은 미사를 더 날카롭게 만든다. 두 접근의 차이는 편성뿐 아니라 Kyrie의 간청, Gloria의 점음표, Credo의 템포를 어디에 무게 두는지에서 생긴다.

Peter Schreier의 2001년 녹음은 Leipzig Radio Chorus와 Staatskapelle Dresden의 큰 합창 규모를 사용하면서도 따뜻한 음향과 생기를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Christopher Hogwood의 2012년 녹음은 시대악기 앙상블의 명료함과 Emma Kirkby의 Agnus Dei를 강점으로 꼽히지만,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균형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Christoph Poppen의 2021년 녹음은 풍부한 관현악과 선율의 너그러움, 극적인 진행을 강조한다.

주요 레코딩

Stephen Cleobury / King’s College Choir·English Chamber Orchestra (Argo,
1984): 약 26분의 짧은 잘츠부르크 미사로서 균형 잡힌 합창과 독창을 들려준다. Agnus Dei의
소프라노 선율과 Mozart 오페라의 연결을 살피기 좋다.
Nikolaus Harnoncourt / Concentus Musicus Wien (1988): 시대악기 접근으로 강한
악센트와 큰 다이내믹을 사용한다. Cleobury의 매끈한 흐름과 대비되는 해석을 비교할 수 있다. Peter Schreier / Leipzig Radio Chorus·Staatskapelle Dresden (2001): 큰 합창
규모와 따뜻한 관현악을 결합해 Gloria와 Credo의 점음표 리듬, 독창 앙상블의 생기를 드러낸다. Christopher Hogwood / Academy of Ancient Music (BBC Music Magazine, 2012): 시대악기 음향과 Emma Kirkby의 Agnus Dei가 돋보인다.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균형에 대한
비평까지 함께 참고할 수 있다.

Christoph Poppen / WDR Choir·Cologne Chamber Orchestra (2021): 잘츠부르크
교회음악의 응축된 형식과 풍부한 관현악 색채를 강조한 전집 녹음 가운데 하나다.

주요 자료

Mozarteum Köchel Verzeichnis, K. 317: 자필 날짜, 초연 추정, 별칭의 후대 기원, 전승 정보. Bärenreiter Urtext BA 04880: Monika Holl 편집 원전판, 초연 가능성, 편성과 별칭에 관한 편집 정보.
Carus Verlag, Missa in C: 자필 악보의 재발견, 전례 시간과 작곡 방식, 현대 원전판 정보. Gramophone, Cleobury: K. 317의 시간과 잘츠부르크 미사 관행, Agnus Dei와 Figaro의 선율 비교.
Gramophone, Harnoncourt: 시대악기 연주의 악센트와 다이내믹 평가.
Gramophone, Peter Schreier: 대규모 합창과 따뜻한 음향에 대한 녹음 평론. Gramophone, Poppen: 잘츠부르크 교회음악 양식과 K. 317의 해석 비교.
BBC Music Magazine, Hogwood: 시대악기 합주와 Agnus Dei, 성악 균형에 대한 평가. Boston Baroque 프로그램 노트: 잘츠부르크 직책과 부활절 예배 맥락.
Viva La Musica 프로그램 노트: 6부분 통상문 구조와 전례 시간, K. 329와의 관련 가능성. IMSLP, K. 317: 공개 악보와 작품 구성.